

## 당진 안국사지 배바위 전설과 매향비

안국사지는 당진군 정미면 수당리(산 102-1)에 위치하고 있다. 창건연대가 백제 말엽이라 하지만 분명하지는 않다. 그런데 안국사지에 있는 석불입상(보물100호) 뒷편 속칭 '배바위'라는 큰 바위가 있고, 목공에 관한 전설이 전해진다.

고려 초기의 일이다. 중국에서 큰 난리가 나자 바닷가에서 목공(木工)일로 생계를 유지하던 가씨(賈氏)라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배를 타고 달아나다가 황해에서 큰 풍랑을 만났다. 배는 전복되었고, 그는 파도에 밀려 정미면 수당리 앞바다 모래펄에 닿았다. 어부에 의해 발견된 가씨는 극진한 간호로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어부의 보살핌에 감격한 가씨는 은혜를 갚을 요량으로 어부에게 배를 만들어 주었다. 가씨가 만든 배는 단단하고 속력도 빨랐다. 배의 성능이 좋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배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끊이지 않았다. 가씨는 정성을 다하여 배를 만들었고, 재산도 많이 모았다. 모은 돈은 모두 곡식으로 바꾸어 안국산 바위 구멍에 쌓았다.

어느 날 바다 멀리 갈 수 있는 배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대형 선박을 건조해야 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가씨는 작업장을 안국산 곡식가마 부근까지 넓혔다. 작업에 열중하던 어느 날 밤 먼 곳에서 천둥소리가 들리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 나처럼 곡식을 쌓은 굴부터 거적으로 가리려 하였다. 그런데 천둥소리와 함께 벼락이 떨어지고, 그가 만들던 배는 커다란 바위로 변해 버렸다. 바위 아래 깔려 있는 곡식가마는 온 나라 백성이 하루동안 먹을 수 있는 정도라고 전해진다.



안국사지 석불입상



매향암각문 탁영



배바위

전설 중에서 '곡식가마는 우리 나라 온 백성이 하루동안 먹을 수 있는 정도'라는 부분은 매향비(埋香碑)가 발견되는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전해지는 내용이다.

매향이란, 미래에 이 세상에 내려올 미륵불의 용화회(龍華會)에 공양할 침향을 마련하는 신앙활동이다. 현재 연구에 따르면, 지방 민중들이 현실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복적인 목적을 위하여 미륵하생신앙(彌勒下生信仰)에 바탕을 두었다고 한다. 향나무나 소나무, 참나무 등을 바닷물에 담가두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침향'이라는 매우 귀한 향·약재(香藥材)가 된다고 믿었다.

매향을 하기에 가장 적당한 곳은 산 골짜기의 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라고 하며, 그 사실을 암각(岩刻)의 형태로 바위에 새기거나 비석의 형태로 돌에 새겨 증거로 표시해 두었다. 한국사에서 매향은 고려 초기에 이미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고려 충선왕대부터 조선 세종대에 걸쳐 전국적으로 널리 유행하였다. 안국사지 배바위 전설과 암각은 바로 이러한 매향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배바위 오른쪽에는 "庚午二月日 / 余美北天口 / 浦東際埋香 / 一丘化主覺先 / 結願香徒"라고 새겨져 있다. 즉 "경오년 2월에 선각(覺先)이라는 화주가 중심이 되어 향도(香徒)를 결성하고 여미현의 북쪽에 있는 천구포 동쪽에 매향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기록에서는 '余美'라는 縣名과 '天口浦'라는 지명이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여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여미현이며, 천구포는 현재의 천의리에 있었던 포구의 옛 지명으로 보인다.

왼쪽에는 "庚戌十月日 / 鹽率西村出浦 / 等香埋置"라 새겨져 있다. "경술년 10월에 염솔 서쪽의 출포(出浦) 마을의 등이 향나무를 묻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본다면 여미현과 염솔부곡의 민중들과 고려 말기의 안국사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 기록에서 주목되는 것이 바로 '鹽率'과 '出浦'이다. 매향 암각에서 보이는 '출포'는 현재의 대호지면 출포리로 추정된다. 대호지면 출포리와 조금리 일대는 고대는 물론 근대사에서도 유명했던 포구였다. 이 포구에서 가야산을 향하면, 서산마애삼존불과 보원사지가 위치한 용현계곡이 있어서 우리의 관심은 더욱 높아진다.

12세기 이후 한반도의 바닷가는 내부적인 모순과 왜구 등의 외침으로 민생이 불안했던 곳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미현과 염솔 부곡의 주민이 미래를 기원하는 미륵신앙의 안식처로 안국사가 선택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향도 또는 계(契)를 조직하여 구세적이고 기복적인 성격을 띤 미륵신앙을 바탕으로, 매향과 같은 활동을 하면서 종교적 구원과 이상사회의 도래를 기원하였다고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충청학연구부>